

유란시아서

<< [제 175 편](#) | [부분](#) | [내용](#) | [제 177 편](#) >>

제 176 편

화요일 저녁 올리브 산에서

176:0.1 (1912.1) 이 화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갯세마네** 캠프까지 가는 길에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서, **마태**는 성전의 건축에 주의를 끌면서 말했다: “주여, 이것들이 어떤 모양의 건물인가 지켜보소서. 육중한 돌과 아름다운 장식을 보소서. 도대체 이 건물들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들이 **올리브** 산을 향하여 줄곧 가는 동안,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이 돌들과 이 육중한 성전을 보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곧 닥치리라. 사람들이 이 돌들을 모두 던져 버리리라.” 신성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묘사하는 이 논평은 주의 뒤를 따라 걷는 동안, 사도들의 호기심을 일으켰다.

176:0.2 (1912.2) **갯세마네**를 향하여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지나가는 군중을 피하려고 **예수**와 동료들은 **올리브** 산 서쪽 비탈을 얼마큼 기어오르고, 다음에 공공 캠프장 위로 조금 떨어져, **갯세마네** 가까이 있는 그들의 사립 캠프까지 오솔길을 따라갈 생각이 있었다. **베다니**로 계속 이끄는 길을 등지고 돌아서자, 그들은 지는 태양의 햇살로 눈부시게 된 성전을 지켜보았다. 산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불이 비추어진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부드러운 보름달 빛 아래서, **예수**와 열두 사도는 앉았다. 주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장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물었다: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려 하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나이까?”

1. 예루살렘의 멸망

176:1.1 (1912.3) **나다니엘**의 물음에 답하여 **예수**는 말했다: “그래, 이 민족이 불의(不義)의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응보가 우리 조상이 살던 이 도시에 급속히 찾아올 때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리라. 나는 바야흐로 너희를 떠나려 하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너희를 떠난 뒤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구원자**를 자칭하며 많은 사람이 길을 잃게 할 것임이라. 너희가 전쟁에 관하여 듣고 전쟁 소문을 들을 때 상관하지 말지니, 이 모든 것이 일어날지라도, **예루살렘**의 종말이 아직 가깝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희는 기근(饑饉)이나 지진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며, 너희가 국가 당국에 끌려가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근심해서도 안 되느니라. 너희는 나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겠고,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음을 당하리라. 너희가 총독과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이는 너희 믿음을 간증하기 위한 것이요, 하늘나라 복음을 너희가 끈질기게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초조해하지 말지니, 바로 그 시간에 영(靈)이 너희가 너희 적들에게 어찌 대답해야 할까 너희를 가르칠 것임이라. 진통이 있는 이날에 너희 친척들조차, **사람의 아들**을 물리친 자들의 지시를

받고서 너희를 감옥과 죽음으로 인도하리라. 한동안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박해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 영이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참으라! 이 하늘나라 복음이 모든 적을 이기고, 궁극에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

176:1.2 (1913.1) **예수**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멈추었다. 영적 **메시아** 개념을 부인하는 것, 곧 기대하는 **구원자**가 물질적 사명을 가졌다는 생각에 끈질기게 맹목으로 집착하는 결심은 얼마 안 있어 **유대인**들을 강력한 **로마** 군대와 직접 충돌하게 만들리라는 것, 그러한 투쟁은 오로지 최종으로 **유대** 민족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주는 깨달았다. 그의 민족이 그의 영적 수여(授與)를 거절하고 그들에게 아주 자비롭게 비친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물리쳤을 때, 그렇게 함으로 땅에서 그들은 영적 사명을 가진 독립된 민족으로서 패망할 운명을 결정하였다. 궁극에 그들을 멸망시킨 소동을 직접 초래한 것은 이 세속적 **메시아** 관념이었다고 후일에 **유대인** 지도자들도 인정하였다.

176:1.3 (1913.2) **예루살렘**이 초대 복음 운동의 요람(搖籃)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관련하여 **유대** 민족의 끔찍한 멸망이 있을 때 복음 선생과 전도자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추종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제자들 중에 더러가 곧 다가오는 이 항쟁에 말려들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죽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다.

176:1.4 (1913.3) 다음에 **안드레**가 물었다: “그러나 주여, 거룩한 도시와 성전이 멸망해야 된다면, 그리고 당신이 여기 계시어 우리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버려야 하나이까?” **예수**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떠난 뒤에, 아니 진통과 모진 박해가 있을 이 시절을

통해서 이 도시에 남아 있어도 좋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폭동이 있는 뒤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마침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예루살렘**의 황폐가 가까웠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너희는 산으로 달아나야 하느니라. 도시 안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자는 누구나 아무것도 구제하려고 머무르지 말고, 바깥에 있는 자들도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말지니라. 큰 시련이 있으리니, 이때는 이방인이 복수하는 시절이 될 것임이라. 너희가 이 도시를 버린 뒤에, 순종하지 않는 이 민족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겠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속지 말라. 누구라도 너희에게 와서 ‘보라, 여기 **구원자**가 있다’ 아니면 ‘보라, 저기에 그가 있다’ 하면 믿지 말지니, 많은 거짓 선생이 일어나고 솔한 사람이 길을 잃을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아야 하나니, 내가 이를 모두 미리 너희에게 일렀음이라.”

176:1.5 (1913.4) 주의 이 놀라운 예언들이 어리둥절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 박히는 동안, 사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달빛 속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로마** 군대가 처음 나타나자, 바로 이 경고(警告)에 순응하여 신자와 제자 무리의 거의 전부가 **예루살렘**에서 달아났고, 북쪽에 **펠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했다.

176:1.6 (1913.5) 이 뚜렷한 경고가 있는 뒤에도 **예수**의 많은 추종자는 이 예언이,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도시가 커져서 세계의 수도가 될 때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일어날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머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하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온 **팔레스타인**을 채우리라, 세상의 종말이 온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즉시 뒤이어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려고 언제 돌아오실까 우리가 어찌 알리이까?”하고 말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76:1.7 (1914.1) 이 말을 듣자, **예수**는 얼마 동안 생각에 잠겼고, 다음에 말했다: “너희가 늘 잘못하는 것은 새 가르침을 옛 가르침과 연결하려고 언제나 애쓰는 까닭이라. 너희는 내 가르침을 모두 오해하려고 결심하였구나. 너희의 굳어진 관념에 따라서 복음 해석하기를 너희가 고집하는도다. 그렇기는 해도 나는 너희를 깨우치려고 애쓰리라.”

2. 주의 재림

176:2.1 (1914.2) **예수**는 몇 경우에 어떤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얼마 안 있어 이 세상을 떠날 뜻이 있지만 하늘나라 일을 마치려고 그가 아주 확실히 돌아오리라 추측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들을 떠나리라는 확신이 추종자들 사이에 커짐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돌아온다는 이 약속을 모든 신자가 단단히 믿은 것은 자연스러웠을 따름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교리는 이처럼 기독교인의 가르침 속에 일찍 합병되었으며, 거의 모든 후세의 제자들이 경건하게 이 진실을 믿어 왔고, 그가 언젠가 오시기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해 왔다.

176:2.2 (1914.3) 그들이 주, 선생과 헤어져야 한다면, 이 초기의 제자와 사도들이 그가 돌아온다는 이 약속에 얼마나 더 굳세게 매달렸는가, 그리고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과 연결시켰다. **올리브** 산에서 가르친 이날 저녁

내내, 주가 바로 그런 잘못을 막으려고 특별히 고심(苦心)했는데도, 그들은 계속 그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다.

176:2.3 (1914.4)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는 대답을 이었다: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를 찾고, **유대인**의 물질적 꿈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제 내려다보는 것들은 이제 종말(終末)에 이르고 있으되, 이것은 새 시작이 될 것이요, 그로부터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으로 가고 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어둠의 왕이 되어 버린 자, 다음에 **아담**, 그를 뒤따라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날 **사람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미 수여한 것 같이, 하늘나라가 완전히 달성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김없이 진실을 더 크게 드러내고 올바름을 더 높이 나타낼 것을 확신하여라. 그래서 내 **아버지**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도 계속하여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을 보이리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능력과 권한을 투입한 뒤에, 나도 또한 그렇게 너희의 운명을 계속 따르고, 내 영이 함께 함으로 하늘나라의 일을 안내하겠고, 그 영을 머지않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비록 내가 이처럼 너희와 함께 정신적으로 있을지언정, 또한 약속하노니, 내가 이 세상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거기서 내가 육체를 입은 이 생명을 살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체험을 얻었노라. 아주 곧 나는 너희를 떠나고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기신 일을 맡아야 하거늘, 기운을 내라, 언젠가 내가 돌아올 것임이라. 그동안에 한 우주에서 내 **진실의 영**이 너희를 위로하고 안내하리라.

176:2.4 (1915.1) “약하고 육체를 입은 나를 지금 너희가 보아도, 돌아올 때 나는 권능을 가지고 영이 되어 오리라. 육체의 눈은 육체를 입은 **사람의 아들**을 바라보나, 오직 영의 눈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땅에 나타나는 **사람의 아들**을 바라보리라.

176:2.5 (1915.2)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나타날 그때는 오직 **파라다이스** 회의에서만 알고 있고, 하늘의 천사들조차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모르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하나니,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시대가 충만하게 무르익었을 때, **아버지**는 너희에게 또 다른 섭리 시대 수여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 시대를 판결하려고 돌아오리라.

176:2.6 (1915.3)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겪을 진통에 관하여 이르자면,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 적이 있고, 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대조차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에 관하여 말하자면, 하늘이나 땅에서 아무도 주제넘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대가 무르익는 것에 관하여 지혜로워야 하고, 시대의 징조(徵兆)를 헤아리기 위하여 경계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무화과 나뭇가지가 부드러운 가지를 보이고 그 이파리를 낼 때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찬가지로, 세상이 물질에 마음을 쓰는 긴 겨울을 지내고 나서, 영적으로 새 섭리 시대의 봄철이 오는 것을 너희가 헤아릴 때, 너희는 새로운 방문이 있을 여름철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176:2.7 (1915.4)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과 상관되는 이 가르침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너희 각자가 일생의 투쟁을 그만두고 죽음의 문을 지나가라고 부름받을 때, 너희는 즉시 심판대에 서고, 무한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봉사하는 새 섭리 시대의 사실에

직면함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끝까지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진보하는, 다음 계시에 본래 있는 조건과 요구에 직면할 때, 한 시대의 끝에 글자 그대로의 사실로서 온 세상이 부닥쳐야 할 것을 너희는 각자 개인적 체험으로서 아주 확실히 부닥쳐야 하느니라.”

176:2.8 (1915.5) 주가 사도들에게 하신 모든 강연 가운데 아무것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자신이 다시 온다는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올리브** 산에서 이 화요일 저녁에 하신 이 강연만큼 그들의 머리 속에서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기회에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에 근거를 두고 후일에 쓴 기록들 사이에 일치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로, 그 화요일 저녁에 말스한 많은 것에 관하여 기록을 비워 두었을 때, 많은 전통이 생겨났다. 그리고 2세기 아주 일찍, **칼리굴라** 황제의 궁정에 부속되었던, 어떤 **셀타**라 하는 사람이 쓴, **메시아**에 관한 어느 **유대인** 묵시록이 **마태** 복음 속에 통째로 복사되었고, 나중에 (일부가)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첨가되었다. **셀타**의 이 기록에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타났다. 복음 기록의 어느 부분도 일찍이 이날 저녁의 가르침처럼 혼동되어 잘못 설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결코 이렇게 혼동하지 않았다.

176:2.9 (1915.6) 이 열세 사람이 캠프를 향하여 길을 다시 떠났을 때, 그들은 말이 없었고, 크게 감정이 긴장되었다. 이전에 **유다**는 동료들을 버리려는 결심을 마침내 확인했다. **다윗 세베대**, **요한 마가**, 그리고 주요 제자 몇 사람이 **예수**와 열두 사도를 새 캠프로 환영한 것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도들은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주가 떠나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끝에 관하여 더 알고 싶어 했다.

3. 캠프에서 나중에 있는 토론

176:3.1 (1916.1) 그들이 스무 명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는 동안, **토마스**가 물었다: “당신이 하늘나라의 일을 마치려고 돌아오셔야 하오니, **아버지**의 일로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무슨 태도를 가져야 하나이까?” **예수**는 불빛에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176:3.2 (1916.2) “그리고 **토마스**야, 너조차 내가 말하고 있던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너와 하늘나라의 관계는 영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개인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라고, 내가 여태까지 내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더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오? 나라들의 멸망, 제국들의 붕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멸망, 한 시대의 종말, 아니 세상의 종말조차, 이것들이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숨겨져 있다는 보장을 받은 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너희는 이미 영생의 보장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일생을 살았은즉 아무것도 너희에게 심각한 관심거리가 될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를 세우는 자, 여러 하늘 세계에서 인가받은 시민들은, 현세의 격변에 흔들리거나 땅에서 생기는 대변동에 마음이 불안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의 생명은 **아들**의 선물이요, 그 선물이 **아버지** 안에 영원히 안전함을 네가 아나니, 나라들이 전복되거나, 시대가 끝나거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는 너에게 무슨 문제이냐? 믿음으로 현세의 생명을 살고 나서, 동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기까지 올바른 영의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처음 모험, 땅에서 겪는 모험을 통해서 너희를 지탱했던 바로 그
살아남는 믿음으로, 너희는 자신 있게 영원한 생애의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느니라.

176:3.3 (1916.3) “피할 수 없이 늘 다가오는 자연사(自然死)에 비추어 개별
신자 하나하나가 일생의 일을 추진하는 것과 꼭 같이, 각 세대의
신자들은 **사람의 아들이** 돌아올 가능성에 비추어 자기의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하느니라. 한번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리를
잡으면, 살아남는 보장에 대해서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나 오해하지 말지어다! 살아남는 이 믿음은 생생한 믿음이요,
인간의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생생한 믿음을 불러일으킨 그 신성한
영의 열매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느니라. 하늘나라에서 아들인 것을
너희가 한 번 받아들였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취적으로 영적 열매를 맺는 것과 상관되는 진실을 일부러 끈질기게
물리치는 경우에, 너희를 구원하지는 못하리라. 땅에서 **아버지**의 일에
나와 함께 하던 너희는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께 봉사하는 길이 싫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도 하늘나라를 저버릴 수 있느니라.

176:3.4 (1916.4) “개인으로서는, 그리고 하나의 신자 세대로서, 내가 비유를
말하는 동안 내 말을 들으라: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었더니, 다른
나라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믿던 종들을 모두 앞에 부르고 저희 손에
그의 재물을 모두 맡겼더라. 한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고,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더라. 이렇게
영예로운 집사(執事) 무리 전체를 거쳐 내려가면서, 각자에게 저희의
몇 가지 능력에 따라서 그의 재물을 맡겼고, 그리하고 나서 길을
떠났더라. 주인이 떠나 버렸을 때, 종들은 저희에게 맡긴 재물로
이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에 달라붙었더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그것으로 장사하여, 금방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곧 두 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래서
이 종들이 모두 저희의 주를 위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한 달란트만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았더라. 그는 혼자 떠나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는지라. 이 종들의 주인이 얼마 안 있어 뜻하지
않게 돌아와서 계산하라고 집사들을 불렀더라. 주인 앞에 모두
부름받았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에게 맡긴 돈을 가져왔고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이 투자하라고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고, 내 이익으로 다섯 달란트를 더 내놓게
되어 기쁘나이다.’ 다음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너는 몇 가지 일에 충성하였고, 이제 너를 여러 사람
위에 집사로 세우리라. 네 주인과 함께 당장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느니라: ‘주여, 당신은 내 손에
두 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나는 다른 이 두 달란트를
벌었나이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너도 몇 가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를
여러 사람 위에 세우리라. 네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자.’ 다음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계산하러 왔더라. 이 종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되, ‘주여,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몸소 수고하지 않은 데서
이익을 기대하시니 당신이 날카로운 사람인 줄 깨달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게 맡긴 어떤 것도 위태롭게 하기가 두려웠나이다.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안전하게 감추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당신에게 속한 것을 이제 당신이 받으셨나이다.’ 그러나 주인이
대답하되, ‘너는 게으르고 굼뜬 집사이라. 네 말대로, 오늘 너의
부지런한 동료 종들이 갚은 것 같이, 너에게서 합당한 이익을 남겨
내가 계산을 요구할 것을 알았다고 네가 고백하였느니라. 이를
알았은즉, 따라서 내가 돌아올 때 내 돈과 이자(利子)를 받도록 적어도

내 돈을 은행가의 손에 맡겨야 했느니라.’ 다음에 우두머리 집사에게 이 주인이 말하되, ‘이 한 달란트를 이롭지 않은 이 집사에게서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였더라.

176:3.5 (1917.1)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풍성하게 가지려니와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너희는 영원한 나라의 사무를 보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자녀들 모두가 은혜 안에서, 진실을 아는 가운데 성장하기를 요구하시니라. 이 진실을 아는 너희는 영의 열매를 더 맺고, 동료 종들에게 사심 없이 봉사하는 데 더욱 헌신함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내 동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베푸는 만큼, 너희가 이 봉사를 내게 한 것임을 기억하라.

176:3.6 (1917.2)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 아니 언제까지라도, 너희는 **아버지**의 일에 몰두해야 하느니라.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라.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라, 그리함으로 너희는 청산하라는 죽음의 호출에 준비가 되리라.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들**이 만족하기까지 살고 나서, 즐겁게, 대단히 큰 기쁨을 가지고, 너희는 영구한 나라에서 영원히 봉사하는 일에 들어갈지니라.”

176:3.7 (1917.3) 진실은 살아 있다. **진실의 영**은 영적 실체와 신성한 봉사가 있는 새 영역으로 빛의 아이들을 늘 이끌고 있다. 고정되고 안전하고 명예로운 형태로 구체화하라고 너희가 진실을 받는 것이 아니다. 새 아름다움과 실제의 영적 이득(利得)이 너희의 영적 열매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 결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마음이 이끌리도록, 너희의 진실 계시는 너희 개인의 체험을 겪음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진실을 아는 가운데 이처럼 성장하는 충성스러운 종들과, 이로서 영적 실체들을 신답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자이라야 “저희의 주와 기쁨을 충분히 나눌 것”을 언제라도 바랄 수 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公言)한 자들의 연속된 세대가 신성한 진실을 돌보는 직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딱한 모습인가: “주여, 1백 년이나 1천 년 전에 당신이 우리에게 맡긴 진실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았고,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충실히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주신 진실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하여 그렇게 탄원하는 것은 주가 계신 앞에서 열매 없는 집사, 진실을 담당한 집사가 옳다고 입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진실을 맡긴 만큼, 진실의 주(主)는 어찌했는가 셈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176:3.8 (1918.1) 이 세상에서 받은 자질과 맡은 직분에 대하여 다음 세계에서 설명하라고 너희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많은 적든, 공정하고 자비로운 계산을 직면해야 한다. 자질을 오로지 이기적 추구에만 썼고, 사람들에게 늘 더욱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영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높은 의무에 전혀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기적 집사는 그들의 신중한 선택으로 생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176:3.9 (1918.2) 자신의 게으름을 직접 주인의 탓으로 돌렸으므로, 모든 이기적 필사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 불충한 종과 얼마나 비슷한가. 사람이 자초(自招)하여 실패를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때때로 가장 탓해서는 안 될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가 얼마나 쉬운가!

176:3.10 (1918.3) 그날 밤 그들이 쉬러 갈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는 거저 받았도다. 그런즉 너희는 거저 하늘의 진실을 주어야 하느니라. 이 진실은 남에게 주면서 불어나고, 너희가 진실을 베푸는 동안에도, 구제하는 은혜의 빛은 더욱 빛나리라.”

4. 미가엘의 돌아오심

176:4.1 (1918.4) 주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어느 단계도 이 세상에 언젠가 그가 친히 돌아온다는 약속처럼 그렇게 오해받은 것은 없다. 일곱째이자 마지막 자신 수여를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체험한 행성으로 언젠가 돌아오는 데 **미가엘**이 흥미를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는 군주인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독특한 인생을 살고, **아버지**가 제한 없이 수여한, 우주를 다스릴 권능과 권한을 혼자서 마침내 얻어낸 세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돌아올 흥미를 가지리라 믿는 것이 당연할 따름이다. 영원히 **유란시아**는 우주 통치권을 얻는 과정에서 **미가엘**이 태어난 일곱 구체(球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176:4.2 (1918.5) 수많은 기회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그가 이 세상으로 돌아올 뜻을 밝혔다. 추종자들이 주가 현세의 **구원자**로서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에 눈을 뜨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들은 그가 돌아온다는 약속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대격변의 사건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담을 밀어 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흩어 놓았는데도 여전히 주가 권능과 영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추종자들은 마침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그 시대의 끝, 아니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킨 관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176:4.3 (1918.6) **예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이 그의 손에 맡겨진 뒤에, 두 가지 일을 하기로 약속했다. 첫째로, 그는 세상으로 자기 대신에 다른 선생, **진실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오순절 날에 그대로 했다. 둘째로, 그는 언젠가 이 세상으로 친히 돌아오리라고 추종자들에게 아주 확실히 약속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자신 수여 체험을 가졌던 이 행성을 어떻게, 어디에서 또는 언제 다시 찾아볼 것인가 말하지 않았다. 그가 육체를 입고 여기서 살았을 때 육체의 눈이 그를 보았어도, 그가 돌아올 때 (적어도 가능한 여러 방문 중 하나에서) 오로지 영적 믿음의 눈으로만 그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그는 한 경우에 암시하였다.

176:4.4 (1919.1)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여러 번 **예수가 유란시아로** 돌아오리라고 우리 가운데 다수가 믿고 싶어 한다. 그가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한다는 특정한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 우주의 칭호들 가운데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라는 칭호를 지닌 분이 이 세상을 여러 번 찾아보리라는 것이 아주 가능성 있어 보이며, 이 세상의 정복은 그러한 독특한 칭호를 그에게 수여했다.

176:4.5 (1919.2) 우리는 **미가엘이 유란시아로** 친히 다시 올 것을 아주 분명히 믿지만, 언제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가 오기를 택할 것인가 털끝만큼도 짐작할 수 없다. 땅에 그가 두 번째로 오심이, 관련된 심판 **아들**의 출현과 함께, 아니면 따로, 이 현재 시대의 마지막 심판과 연결하여, 때를 맞추어 일어날 것인가? 후일의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과 연결하여 그가 오실까? 발표하지 않고, 그리고 독립된 사건으로서 오실까? 우리는 모른다. 오직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신하는데, 즉 그가 돌아올 때, 아마도 온 세상이 알 듯하다는 것이니, 이는 그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아기가 아니라 한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면, 그리고 오직 영적 눈이 그의 계심을 헤아릴 것이라면 그의 오심은 오랫동안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

176:4.6 (1919.3) 그러므로 너희는 주가 친히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떤 정해진 사건이나 정착된 시대와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가 돌아오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가 언제 또는 어떤 관계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우리는 조금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땅에 언제라도 나타날지 모르며, 여러 시대가 지나고 그 시대들이 그와 관계된 **파라다이스** 군단의 **아들들**에게 정식으로 판결받을 때까지 오지 않을지 모른다.

176:4.7 (1919.4) 땅에 **미가엘**이 두 번째로 오는 것은 중도자(中道者)와 인간 모두에게 엄청나게 감상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그밖에 이것은 중도자에게 아무런 직접 의미가 없고, 보통 일어나는 자연사의 사건보다 인간에게 아무런 실용적 중요성이 더 없다. 자연사는 아주 갑자기 필사 인간을 바로 이 **예수**, 우리 우주의 군주 통치자가 계신 앞으로 직접 인도하는, 연속된 우주 사건들의 손아귀에 즉시 떨어뜨린다. 빛의 아이들은 모두 그를 만나볼 운명을 가졌고, 우리가 그에게 가거나 아니면 그가 어쩌다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든지, 조금도 심각하게 아랑곳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반가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언제나 땅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우리는 그가 영화롭게 나타나시는 것, 아니 거듭 오시는 것까지도 자신 있게 기대하지만, 어떻게, 언제, 아니면 어떤 관계로 그가 나타나기로 정해졌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